

지하철에서

임 양 수(시인)

건너편

경로석에 여성 홀로 앉아있다
다소 곧 침묵이 흐른다
둘 이상이 되자
속삭이며 생기가 돈다

경로석에 남성 홀로 있다
두 눈 감고 침묵이 흐른다
둘 이상이 되어도
역시 묵상이다

구암 역에서 승차한 할바 들
장날의 탁한 향기 뿜으며
시끌벅적 생기가 돈다

귀 틀어막는 차세대중년들
'나이 들면 단가!'
꼰대인 나도 에~이 하며 돌아앉았다

지하철은 창밖을 볼 수 없어 내부 건너편이나 가까운 앞이 눈을 감지 않으면 뻔히 바라다 볼 수 밖에 없다. 마치 연극의 한 장면처럼 경로석에 등장하는 여성과 남성의 성향에 대한 관찰을 통하여 분석한 결과를 들려주는 진지한 분위기는 사뭇 긴장감을 유지한다.

그러나 구암역에서 장날의 탁한 향기가 생기를 풍기면서 평형상태가 깨지고 만다. 마치 주인공인 듯 드러났지만 공중질서를 망가트리는 꼰대로 전락하고 만다. 여성의 속삭임과 남성의 침묵이 주류를 이뤘던 기류가 언성을 높여 떠들썩해지니 돌연히 불만이 솟구친다.

제한된 공간에서 밀집된 사람들 틈에서 나이 들고 술 한 잔에 얻은 흥을 그대로 가져와 자제력이 떨어져 장터로 착각하든가 아니면 소외되어 눈치만 보다가 모처럼 벗어나 활개를 치는 캐릭터의 심리상태가 묘사되었다. (윤제철)

참배(參拜)

노 중 하(수필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명복을 빌고 호국정신과 위훈을 추모하는 제65회 현충일 국립 현충원을 찾아 나섰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행사는 취소되고 사회적 거리 두기로 간략하게 각자 정성 들여 만든 음식과 꽃을 가져와 헌화하고 비석을 어루만지며 추억에 잠겨 흐느끼며, 하늘나라에서 잘 지내고 있겠지, 집안 걱정하지 마라, 우리는 다 잘 있다.

주월 사령관이신 채명신 장군의 묘역에는 월남과병 장병들이 삼삼오오 찾아와 헌화하고 월남 소주를 따르며 권하는 사병, 거수경례하는 사병, 부인과 함께 찾아 온 백발의 노신사는 참전 당시를 회고하며 죽음의 문턱을 몇 번이나 들락날락했다며 당신을 만나 행복하게 사는 것이 장군님의 보살핌이라며 기념 촬영하는 부부의 웃음꽃이 유월의 장미꽃보다 아름답게 피워, 온 산천에 향기가 진동하는 듯하다.

유월의 첫 주말 여름을 재촉하는 기운으로 조금만 걸어도 땀이 흘러내리고, 사람들은 나무 그늘 밑에서 오순도순 이야기하는 소리 들으며 가다 보니 애국지사 묘역, 임시정부 요인 묘역에 도착하니 생소한 글귀가 나의 앞을 가로막았다. 무후선열제단(無後先烈祭壇)이란 독립운동을 하다가 순국하였으나 후손이 없거나 유해마저 찾을 길이 없는 선열 130분의 위패를 봉안하고 있다.

독립 만세를 외치다 체포되어 옥중에서 순국한 유관순 열사, 고종황제의 친서를 가지고 네덜란드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특사로 파견된 이상설, 이위종 열사, 만주 지역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를 승리로 이끌어낸 홍범도 장군의 위패가 눈에 확 들어 왔다. 현시 비에는 “묘소도 없고 자손도 없이 외로운 혼으로 도는 이들, 돌보아 드린 이 하나 없고, 기억마저 사라져 가므로 존함이나마 정성껏 새겨 따로 이곳에 모시옵나니 선열들이여 국민 모두가 후손이외다. 우리들 제사 받으옵소서”

홍범도 장군은(1868~1943) 그는 또 누구인가? 19세기 말 일제에 항거해 항일의병장과 대한독립군 사령관으로 카자흐스탄에서 생을 마감했다. 홍범도는 평양의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나 조실부모한 후 머슴살이를 하며 유년 시절을 보내며 성장하여 남다른 순발력과 손재주가 뛰어났다. 축지법을 써가며 동에 번쩍 서에 번쩍 날아다니는 홍범도라는 별명을 얻으며 눈부신 의병 활동을 펼치던 그는 1910년 소수의 부하를 이끌고 만주로 건너가 독립군을 양성하여 일제 항거 활동을 한다.

1920년 독립전쟁 사상 최대의 승전인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에서 승전고를 울렸다. 연해주에서 집단농장을 운영하며 한인의 민족의식 고취에 노력해 왔으나, 1937년 스탈린의 한인 강제 이주 정책에 따라 카자흐스탄으로 강제 이주 됐고 그곳에서 원로로 활동하다가 먹고 살기 위해 마지막의 직업은 정미 공장 근로자로 일을 하다가 조국광복 2년을 앞두고 1943년 10월 25일 75세 나이로 생을 마감하게 된다.

동아일보 기사에 의하면 문 대통령은 봉오동전투 전승 100주년인 7일 “정부는 이역만리 카자흐스탄에 잠들어 계신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조국으로 모셔올 것”이라며 “독립운동의 뜻을 기리고 최고의 예우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해군은 5일 “홍범도 함에서 해상결의대회를 열고 영해 수호 의지를 다짐했다고 한다.

순국선열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먼저 죽은 열사,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자발적으로 독립투쟁을 벌이다가 전사, 옥사, 병사한 사람, 나라가 부르지 않았음에도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 임진왜란 때 의병이나 일제 강점기의 의사, 열사분들을 순국선열(殉國先烈)이라한다. 호국영령은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킨 명예로운 영혼, 나라를 지키고 보호하신 영혼, 국가의 부름을 받고 전쟁에 임한 국군장병, 임무 중 순직한 경찰, 소방관, 나라를 지키다 희생된 자를 호국영령(護國英靈)이라한다.

“조선 총독부를 폭파하라” 조국의 독립을 위해 날아오른 한국 최초의 여성 비행사 애국지사 권기옥의 묘가 푸른 잔디밭 광장에서 하늘을 날아오르는 형상으로 하얀색 화강석 비석이 꿈틀꿈틀하니 어디선가 굉음이 들려오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권기옥은 1908년 평안남도 평양에서 출생하여 승의여학교 학생 시절 독립운동에 가담하여 경찰의 눈총을 받게 되어 감옥과 망명의 길을 걷기도 했다. 여의도 비행장에서 열렸던 미국인 “아토스 미스”의 곡예비행을 통해 비행사의 꿈을 갖게 된다.

중국 운남 육군항공학교 제1기생으로 졸업해 한국 최초의 여성 비행사가 된다. 일본경찰의 주목을 받으면서 옥살이를 반복했지만, 애국심 하나로 두려움을 무릅쓰고 당당하게 비행기에 몸을 실었던 권기옥은 독립 운동가이며 우리나라 최초의 비행사이자 대한민국공군의 어머니이신 선생님의 비석 앞에 서니 나는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부끄럽기 그지없고 나 자신은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먼 하늘을 쳐다보며 앞으로 국립묘지를 찾아 무연고 묘를 보살피도록 노력해 볼까 합니다.